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금리 상승 제한, 테슬라 급등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24일(목) 미국 증시는 미국채 금리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테슬라 급등, 개별 종목별 실적 발표를 소화하며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 (다우 -0.33%, S&P500 +0.21%, 나스닥 +0.76%)

유로존 10월 합성 PMI는 49.7을 기록하며 전월(49.6)과 컨센서스(49.8)와 부합하는 수치 기록. 지난 9월 7개월 만에 50선을 하회하며 위축국면으로 진입한 유로존 합성 PMI는 이번 달에도 위축 국면 지속. 제조업 PMI는 45.9를 기록하며 전월치(45.0)와 컨센서스(45.3)를 상회. 서비스업 PMI는 51.2를 기록하며 전월치(51.4)와 컨센서스(51.5)를 모두 하회. 한편, 독일의 10월 제조업 PMI는 42.6을 기록하며 전월치(40.6)를 상회.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10월 13~19일)는 22.7만 건으로 전주 수치(24.2만 건)와 컨센서스(24.2만 건)을 크게 하회. 최근 허리케인 여파로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 다만, 2주 이상 신규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 189.7만 건으로 직전 주 대비 2.8만 건 상승, 3년만에 최대치 기록.

미국 10월 제조업 PMI는 47.8을 기록하며 전월치(47.3)와 컨센서스(47.5)를 모두 상회. 2개월 만에 최대치 기록. 10월 서비스업 PMI도 55.3을 기록하며 전월치(55.2)와 컨센서스(55.0)를 모두 상회.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합친 종합 PMI도 54.3을 기록하며 전월치(54.0)를 상회. 2개월만에 최대치 기록. 집계측에 따르면 신규주문 유입이 1년 반만에 최고치라고 언급하며 장기적인 제조업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테슬라(+21.9%)가 급등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0.03%), 메타(+0.73%), 아마존(+0.9%), 애플(-0.08%), 엔비디아(+0.61%), 알파벳(-0.04%)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흐름을 보임. 업종별로 살펴보면, 경기소비재(+3.2%), 통신(+0.2%), 부동산(+0.2%)는 상승한 반면, 소재(-1.4%), 유ти리티(-0.7%), 산업재(-0.7%)는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S&P500과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요인은 테슬라가 급등효과와 미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멈췄다는 점이 주된 요인. 테슬라 3분기 실적은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는 마진율을 보이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 또한, 일론 머스크가 저가 전기차와 자율주행 도래로 내년 20~30%의 차량 판매 성장이 있을 것이라 언급한 점이 급등 요인으로 작용. 테슬라가 '13년 이후 최고의 일일 상승폭(21.9%)'을 기록하며, 니콜라(+6.30%), 리비안(+2.66%), 루시드(+0.40%) 등 전기차 관련주 일제히 상승.

한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단기 상승에 따른 고점 부담으로 4.2%선에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 전일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7만 건을 기록하며 전주(24.2만 건)대비 하락하였고, 미국 10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도 반등하며 최근 2개월래 가장 높았음. 이처럼, 견조한 경기 지표에도 시장 금리가 상승폭이 제한되었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트럼프 지지율 상승, 연준의 금리 인하 제한 우려가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되었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SK하이닉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어닝 쇼크, 금리 급등에 따른 성장주 약세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순매도세가 지속된 결과 양 지수는 하락 (코스피 -0.72%, 코스닥 -1.42%)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채 금리 하락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테슬라 급등효과 등의 요인으로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 출발 할 것으로 전망. 다만, 여전히 대형주 중심으로 취약한 투자심리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시, 지수단에서의 반등 탄력은 제한되며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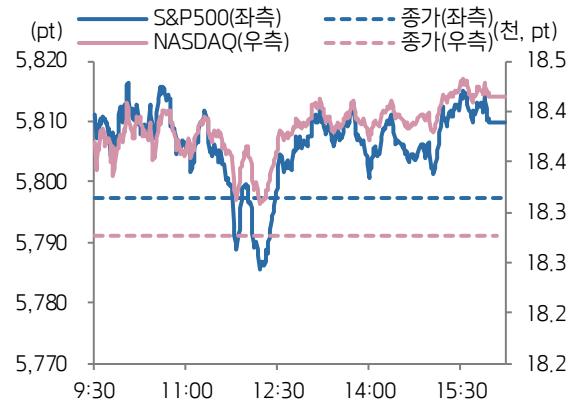
국내 증시 소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일 한국의 3분기 GDP 부진도 향후 국내 기업들의 실적 성장에 우려를 가중하는 요인. 한국 은행에서 발표한 3분기 GDP(QoQ)는 당초 기대치(+0.5%)를 하회하는 0.1% 상승에 그침. 특히, 3분기 수출이 전 분기 대비 0.4% 감소하며 1년 9개월만에 역성장한 점이 국내 IT,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업종의 투자심리를 약화시켰다고 판단.

이처럼, 대형주 부진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지수 플레이보다는 업종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 국내 증시의 반등세가 제한됨에도 최근 까지 상승세가 유지되는 업종은 방산과 금융. 방산주는 상대적으로 매크로 (달러강세, 금리 상승) 변수와 상관관계가 적고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라는 점이 상승 요인. 특히, 올해와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점이 외국인 매수세를 자

극하는 요인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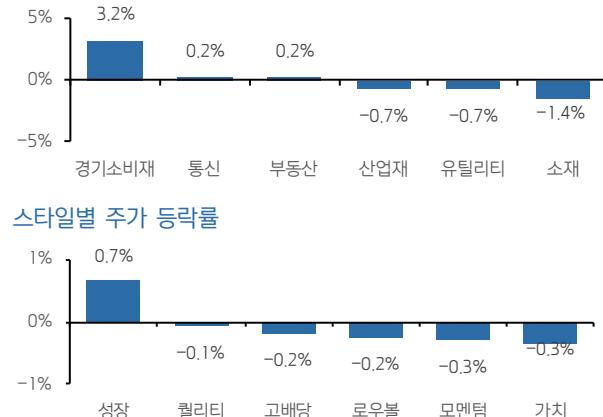
한편, 시장 금리 상승이 오히려 수혜로 작용하는 금융주도 최근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음. 특히, 주요 금융주는 금번 3분기 실적 시즌 내 밸류업 정책 공시 기대감이 부각되는 점도 최근 상승의 또 다른 배경. 또한, 최근 실적발표에서 LG전자, SK텔레콤 등 비금융주 중 대표주가 밸류업 정책을 공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시 남은 실적 기간 밸류업 정책 공시 유무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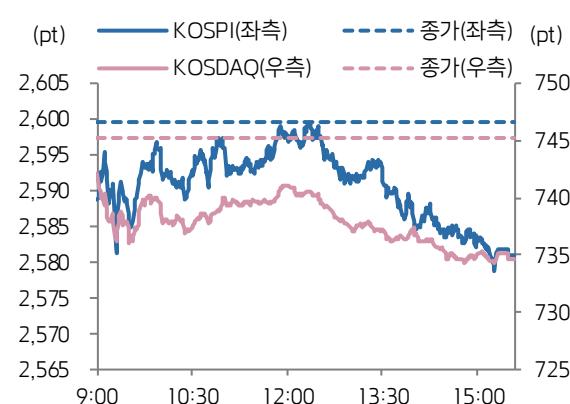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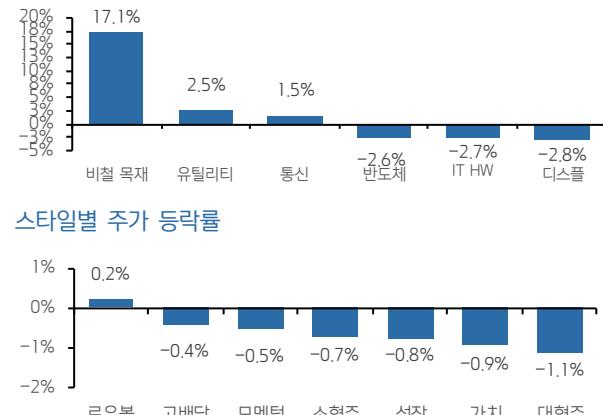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30.57	-0.08%	+20.21%	GM	52.72	-0.38%	+47.96%
마이크로소프트	424.73	+0.03%	+13.57%	일라이릴리	891.32	-1.32%	+53.65%
알파벳	162.72	-0.04%	+16.77%	월마트	83.04	-0.28%	+59.56%
메타	567.78	+0.73%	+60.89%	JP모건	224.98	+0.7%	+35.42%
아마존	186.38	+0.9%	+22.67%	엑손모빌	119.59	-0.57%	+22.69%
테슬라	260.48	+21.92%	+4.83%	세브론	150.45	-0.02%	+4.15%
엔비디아	140.41	+0.61%	+183.59%	제너럴일렉트릭	83.04	-0.3%	+59.6%
브로드컴	171.35	-1.24%	+55.16%	캐터필러	387.06	+0.34%	+33.01%
AMD	153.44	+0.35%	+4.09%	보잉	155.20	-1.18%	-40.46%
마이크론	106.85	+1.71%	+25.58%	넥스트에라	82.81	-2.5%	+39.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81.03	-0.72%	-2.8%	USD/KRW	1,382.30	+0.05%	+7.32%
코스피200	342.88	-0.98%	-4.22%	달러 지수	104.03	-0.39%	+2.66%
코스닥	734.59	-1.42%	-15.23%	EUR/USD	1.08	+0.43%	-1.91%
코스닥150	1,247.10	-1.55%	-10.5%	USD/CNH	7.12	-0.16%	-0.02%
S&P500	5,809.86	+0.21%	+21.8%	USD/JPY	151.83	-0.61%	+7.65%
NASDAQ	18,415.49	+0.76%	+22.68%	채권시장			
다우	42,374.36	-0.33%	+12.43%	국고채 3년	2,890	-4.2bp	-25.5bp
VIX	19.08	-0.83%	+53.25%	국고채 10년	3,070	-5.7bp	-10.5bp
러셀2000	2,218.92	+0.23%	+9.46%	미국 국채 2년	4,079	+0.1bp	-17.1bp
필라. 반도체	5,157.61	+0.51%	+23.52%	미국 국채 10년	4,212	-3.4bp	+33.3bp
다우 운송	16,077.10	-0.06%	+1.12%	미국 국채 30년	4,474	-4.4bp	+44.6bp
상해종합	3,280.26	-0.68%	+10.26%	독일 국채 10년	2,266	-3.8bp	+24.2bp
항셍 H	7,359.14	-1.59%	+27.57%	원자재 시장			
인도 SENSEX	80,065.16	-0.02%	+10.83%	WTI	70.19	-0.82%	-0.16%
유럽, ETFs				브렌트유	74.38	-0.77%	-3.45%
Eurostoxx50	4,935.45	+0.26%	+9.16%	금	2,748.90	+0.71%	+27.26%
MSCI 전세계 지수	844.34	-0.81%	+16.14%	은	33.80	-0.13%	+40.31%
MSCI DM 지수	3,697.60	-0.9%	+16.67%	구리	435.15	+0.35%	+11.85%
MSCI EM 지수	1,141.81	-0.03%	+11.53%	BDI	1,445.00	-2.36%	-30.99%
MSCI 한국 ETF	61.24	+0.03%	-6.55%	옥수수	421.50	+0.6%	-16.29%
디지털화폐				밀	581.75	+0.56%	-13.04%
비트코인	68,149.93	+2.35%	+60.32%	대두	1,005.25	+0.02%	-19.76%
이더리움	2,535.89	+0.93%	+11.11%	커피	245.45	-2.73%	+30.3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2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